

화장품 수출국 편중

홍콩 · 미국 · 싱가포르 58.6% 점유

화장품의 무역역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대상 국가마저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어 화장품의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품 수출현황(1994)(단위 : 달러, %)			
미	국	5,763,817.5	18.64
홍	콩	6,974,346.9	22.55
싱	가	5,382,573.4	17.41
대	만	1,746,149.4	5.65
말	레이지아	3,051,858.1	9.87
인	도네시아	470,636.3	1.52
브	라질	413,230.8	1.34
중	국	2,381,613.5	7.70
오스트레일리아		387,041.0	1.25
러	시아	653,326.1	2.11
캐	나다	262,881.1	0.85
일	본	215,210.0	0.70
베	트남	95,273.0	0.31
아르헨티나		32,255.2	0.10
영	국	126,074.3	0.41
독	일	259,437.0	0.84
타	이	28,716.0	0.09
바	레인	88,177.0	0.29
체	크	620,577.0	2.01
미	얀마	91,840.8	0.30
사	이판	60,810.2	0.20
몽	고	110,618.2	0.36
파	키스탄	19,520.0	0.06
멕시코	코	375,162.0	1.21
내	국수출	634,782.0	2.05
기	타	675,611.7	2.18
			100.00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가 최근 발표한 「94 화장품 회사별 · 지역별 수출실적」에 따르면 태평양을 비롯 국내 34군데 화장품제조기업들은 내국수출을 포함해 세계 26개 국가에 모두 3092만1000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물량의 대부분이 홍콩 · 미국 · 싱가포르 등에 편중돼 있어 시장다변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3년 수출대상지역 31개국에 비해 5개국이 줄어든 것으로 국내 장업체의 수출편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수출실적을 보면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에 힘입어 홍콩이 697만4000달러로 가장 많아 93년에 1위를 기록했던 미국시장을 제치고 국산화장품의 최대 수출지역으로 올라섰다.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수출물량이 많았던 국가는 미국이 576만3000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8.6%를 차지했으며, 3위는 싱가포르로 538만2000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해 17.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또 말레이시아 305만1000달러(9.9%), 중국 238만1000달러(7.7%), 대만 174만6000달러 (5.7%) 순으로 나타나 이들 6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화장품산업이 발달한 프랑스 · 독일 · 일본 · 영국 등의 경우 수출액이 지극히 미약해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 겨냥과 국산화장품의 홍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별로는 전체 수출액의 9.7%를 차지한 라미화장품이 싱가포르와 미국 등 15개국에 302만2000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태평양과 LG화학이 각각 13개국에, 코스핀 화장품이 9개국에, 정산실업 · 코리아나화장품 · 샤몽화장품 · 참존이 각각 8개국, 쥘리아가 7개국에 국산화장품을 수출해 수출 다변화를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5/5/1>